

아동의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비행 및 폭력경험 실태를 중심으로

Children's life at school: Focusing on school satisfaction, delinquent behaviors, and school violence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원고는 2013년에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비행행동,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초점을 두어 리뷰하고 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나, 약 10%의 아동이 하나 이상의 비행행동을 경험하고, 약 30%의 아동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및 치료·치유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1. 들어가며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며, 학교는 가정, 친구관계와 더불어 중요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으로 여겨진다(Curie et al., 2012)¹⁾.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모 및 가족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반 친구들과의 관계 등과 같은 학교생활 역시 아동의 정서 및 신체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행복

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잘 알려져 있다(김의철·박영신, 2004)²⁾.

아동의 학교생활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이다(OECD, 2012³⁾; 김의철·박영신, 2004).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OECD, 2012). OECD의 PISA 보고서(2012)를 보면, 우리나라 15세 아동의 수학, 읽기, 과학 수준은 5~6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최근의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1) Currie C. et al., ed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young people.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9/2010 survey.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2(Health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o. 6).

2) 김의철·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9(4), pp.973-1002.

3) OECD (2012). *PISA 2012 results in focus: What 15-year-olds know and what they can do with what they know*, OECD.

외, 2013)⁴⁾에서도 아동들은 스스로의 학업성취도를 보통에서 약간 높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학업성취도와는 달리,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OECD, 2012), 아동의 흡연 및 음주와 같은 비행행동, 학교폭력, 최근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로 인한 사이버 폭력 등은 정제되어 있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⁵⁾.

특히, 아동들의 흡연 및 음주와 같은 비행행동 및 최근의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아동들이 받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낮은 학업성취도, 학교 내 또래 문화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또한 이 같은 문제들은 아동들의 행복감(김미숙 외(2013) 이진숙·김은주(2013))⁶⁾,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업중단 의사 등(과도(교육부, 2012)⁷⁾)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표 1. 9~17세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점수, 명)

구분		평균	SD	t/F value
전체		3.09	0.42	-
아동 성별	남자	3.06	0.43	2.38*
	여자	3.12	0.41	
연령	9~11세	3.19	0.42	-4.81***
	12~17세	3.05	0.42	
소득수준	빈곤	2.99	0.47	3.95***
	일반	3.10	0.42	
지역	대도시	3.09	0.43	-0.86
	중소도시	3.10	0.42	
	농어촌	3.01	0.41	
가족유형	양부모	3.10	0.42	-1.72
	한부모·조손	3.04	0.45	

주: 1) 4점 척도, 최소값=1(전혀 그렇지 않다), 최대값=4(매우 그렇다)

주: 2) *p<.05, ***p<.001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4)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5)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3 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6) 이진숙·김은주(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총복가정학회지), 22(5), pp.433-445.

7) 교육부(2012), 2012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따라서 아동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아동의 삶의 질 및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5년마다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학교생활이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본 원고는 2013년에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이 어떠한지를 학교생활 만족도와 비행행동 및 학교/사이버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2.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기존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OECD, 2012).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제비교 연구(OECD, 2012)에서 '학교에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우리나라 아동의 비율은 약 60% 정도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65%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측정한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 측정 문항과 측정 연령이 달라 OECD 보고서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⁸⁾, 실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9~17세 아동의 평균 학교생활 만족도⁹⁾는 4점 만점 중 3.1점으로 학교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더불어, OECD PISA 보고서(2012)에서 측정한 문항 중 '학교에서 행복하다' 문항과 유사한 문항인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학교생활이 즐겁다' 문항을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 아동의 약 87.8%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만을 가지고 선불리 우리나라 아동의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기존연구에서 보고하는 바와 같이(OECD, 2012), 비록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 특히 빈곤가구의 아동인 경우 일반가구 아동에 비하여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t=3.95, p<.001$). 또한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2~17세의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 학업스트레스와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8) OECD PISA 보고서(2012)에서는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측정하였으며, 이 중 '학교에서 행복하다'와 '학교에 만족한다'의 문항과 같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9~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른 문항들을 활용하여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어(각주 9참조), 직접적으로 결과를 비교하기가 어려움.

9) 학교생활 만족도는 총 9문항으로 측정된 것으로 '학교생활이 즐겁다'와 같이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나타내는 6개 문항과,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와 같이 부정적인 학교생활을 나타내는 문항 3개로 구성되어 있음. 본 원고에서 사용한 학교생활 만족도는 부정적인 학교생활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역코딩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함.

또한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업 성취도, 친구관계, 학업중단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있다(교육부, 2012). 2013년 아동종합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아동일수록,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아동일수록, 친구의 일탈정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¹⁰⁾(표 2 참조). 또한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아동에게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학업중단의사가 있는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2.4점 vs 학업중단의사가 없는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3.1점; $t = -4.39, p < .001$).

OECD PISA 보고서(2012)와 달리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빈곤가구의 아동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낮을수록, 친구의 일탈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이처럼 학업성취도 및 친구관계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 아동의 학업중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성취, 또래관계 증진,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아동의 비행행동

아동의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행동과 더불어, 놀리기, 왕따 등의 부정적인 친구관계,

표 2. 9~17세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Spearman 상관계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친구와의 애착정도 ¹¹⁾	친구의 일탈정도 ¹²⁾
학교생활 만족도	1.00	-	-	-
학업성취도	0.38***	1.00	-	-
친구와의 애착정도	0.43***	0.19***	1.00	-
친구의 일탈정도	-0.45***	-0.17***	-0.17***	1.00

주: ***p<.001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10) 본 원고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친구관계, 학업중단의사 간 관계의 인과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움.
- 11) 친구와의 애착정도는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등의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까지의 값을 가짐.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12) 친구의 일탈정도는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적이 있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등의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까지의 값을 가짐.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일탈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가출 및 무단결석에 이르기까지 비행행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홍성훈·김희수(2007)¹³⁾).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비행행동 경험률은 어떠한지, 비행행동 경험이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아동의 비행행동을 주로 아동이 어떠한 또래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 설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원고에서도 아동의 비행행동과 친구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동의 비행행동¹⁴⁾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9~17세 아동의 약 11.3%가 지난 1년 동안 하나 이상의 비행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각 비행행동으로 살펴보면, 9~17세 아동의 6.9%가 술을 마셔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남자 아동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혹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행행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비행행동마다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가족유형별 특성이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2~17세 아동의 경우 음주(9.1%) 및 흡연경험률(4.9%)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반해 9~11세 아동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의 비율이 2.5%로 12~17세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김미숙 외의 보고서(201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비행행동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2~17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음주와 흡연과 같이 건강에 해로운 행동에 초점을 맞춘 예방교육

표 3. 9~17세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비행행동 경험률

(단위: %)

순위	구분	전체	아동성별		연령		소득수준		지역			가족유형	
			남자	여자	9~11세	12~17세	빈곤	일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양부모	한부모·조손
1	술	6.9	7.1	6.7	1.2	9.1	7.0	6.9	3.4	9.5	9.8	6.9	6.9
2	담배	4.0	5.5	2.4	1.7	4.9	5.1	4.0	2.6	5.0	5.6	3.8	5.3
3	놀리기	2.1	2.6	1.6	2.5	2.0	2.8	2.1	3.2	1.5	0.0	2.1	2.3
4	무단결석	1.7	1.4	2.1	1.0	2.0	4.2	1.6	1.5	2.0	1.5	1.4	3.6
5	도박	1.2	1.5	0.9	1.4	1.1	1.0	1.2	0.8	1.7	0.4	1.1	1.6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고서의 <표 9-3>과 <표 9-4>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13) 홍성훈·김희수(2007).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47, pp.193-216.

14)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측정한 비행행동은 총 15가지로서,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조롱하기, 왕따 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임신 또는 임신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가 포함되었음. 본 원고에서는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5가지 비행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9~11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건강한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비록 <표 3>에서 전반적으로 9~11세 아동보다 12~17세 아동에게서 비행행동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비행행동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된다는 점에서 조기발견 및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김미숙 외(2013)의 보고서에 제시된 바를 지지한다.

아동의 비행행동과 또래관계 간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또래관계 중 하나인 친구와의 애착정도는 아동의 비행행동 경험 유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0.13, p = 0.898$). 하지만 친구의 일탈정도와 아동의 비행행동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는데($t = 5.92, p < .001$), 지난 1년 동안 하나 이상의 비행행동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친구의 일탈정도가 비행행동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의 비행행동과 관련하여 이들

의 또래관계에 중점을 맞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4. 아동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경험

비행행동과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현상이다.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2012)¹⁵⁾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장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사이버 폭력 역시 그 문제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은 어떠한지,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경험이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표 4. 9~17세 아동의 지난 1년 간 비행행동 경험 유무별 또래관계

구분	친구와의 애착정도		친구의 일탈정도		t/F value
	평균	SD	평균	SD	
비행행동 경험 없음	2.99	0.48	1.38	0.62	-0.13
비행행동 경험 있음	2.96	0.50	1.68	0.65	5.92***

주: *** $p < .001$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15) 교육부(2012).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처리 지침.

같이(김희수 외, 2006¹⁶⁾),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행동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경험이 아동의 정신건강(예. 우울), 학교생활 만족도 및 또래관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¹⁷⁾ 실태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우리나라 아동의 32.2%가 하나 이상의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아동의 21.5%가 하나 이상의 유형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11세 아

동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한부모 조손가정의 아동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경우, 남자아동일수록 학교폭력 가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소득수준, 거주 지역이나 가족유형은 가해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과 아동의 정신건강(우울수준), 학교생활 만족도 및 또래관계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표 5. 9~17세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

(단위: %)

구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없다	있다	Chi-square value	없다	있다	Chi-square value	
전체	67.8	32.2	-	78.5	21.5	-	
아동 성별	남자	66.6	33.4	1.45	75.4	24.6	12.37*
	여자	69.1	30.9		81.9	18.1	
연령	9~11세	61.4	38.6	14.7**	77.8	22.2	0.18
	12~17세	70.3	29.7		78.7	21.3	
소득 수준	빈곤	67.6	32.4	0.003	77.3	22.7	0.08
	일반	67.8	32.2		78.5	21.5	
거주 지역	대도시	64.6	35.4	8.81*	79.4	20.6	3.79
	중소도시	69.8	30.2		77.0	23.0	
	농어촌	74.9	25.1		83.9	16.1	
가족 유형	양부모	68.9	31.1	6.99*	78.6	21.4	0.58
	한부모·조손	60.9	39.1		76.5	23.5	

주: *p<.05, **p<.01, ***p<.001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16) 김희수, 이재도, 홍성훈(2006).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이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24, pp.79-97.

17)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를 포함한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가해 행동은 대상 아동이 피해행동 문항과 동일한 행동을 자신이 다른 아동에게 한 적이 있는 지로 측정하였음.

있는 아동의 경우, 우울수준이 높게(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의 우울수준=17.3 vs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아동의 우울수준=15.5점) 나타났다. 또한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와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낮고, 친구의 일탈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¹⁸⁾, 이에 따라 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률(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및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김미숙 외,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사이버폭력 피해 혹은 가해 경험¹⁹⁾ 실태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우리나라 아동의 약 2.8%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비율의 아동이(2.7%)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이버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살펴보면, 빈곤가구 아동일수록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의 아동일수록 사이버 폭력 가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 피해 혹은 가해 경험에서의 아동의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9~11세 아동 및 한부모·조손가구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아동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김미숙 외(2013)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12~17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2008년에 비해 감소한 것에 반해 9~11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정체되어 있는 양상이 나타나므로, 보다 9~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본 원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빈곤가구 아동에게 좀 더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본 원고는 2013년에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비행행동,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초점을 두어 리뷰하고 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의 학교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기존 연구에서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비행행동 및 사이버 폭력과 학교폭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약 10%의 아동이 하나

18)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19)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은 '다른 아이들이 인터넷, 휴대폰, SNS, 카페 등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올린 적이 있다'와 '아이들이 인터넷, 휴대폰, SNS 카페 등에서 나를 왕따 시킨 적이 있다'의 2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학교폭력관련 문항과 같이 가해 경험은 피해행동 문항과 동일한 행동을 자신이 다른 아동에게 한 적이 있는 지로 측정하였음.

이상의 비행행동을 경험하였고, 약 30%의 아동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및 치료·치유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학교생활 만족도는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행행동,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본 원고는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바와 같이(이은혜 외, 2001)²⁰⁾, 아동의 학교

생활에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친구와의 애착관계가 좋을수록, 친구의 일탈 정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좋아지고, 비행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체계의 하나로 건강한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의 비행행동과 학교폭력은 단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하고 학교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가족 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양한 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희수 외, 2006; Olweus,

표 6. 9~17세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

(단위: %)

구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없다	있다	Chi-square value	없다	있다	Chi-square value
전체		97.2	2.8	-	97.3	2.7	-
아동 성별	남자	97.2	2.8	0.001	96.9	3.1	2.09
	여자	97.2	2.8		97.9	2.1	
연령	9~11세	98.3	1.7	3.57	98.4	1.6	3.37
	12~17세	96.8	3.2		96.9	3.1	
소득 수준	빈곤	93.0	7.1	6.78***	94.2	5.8	3.89**
	일반	97.4	2.6		97.5	2.5	
거주 지역	대도시	96.8	3.2	1.46	97.2	2.8	1.73
	중소도시	97.6	2.4		97.2	2.8	
	농어촌	96.4	3.6		99.2	0.8	
가족 유형	양부모	97.5	2.5	3.38	97.7	2.3	6.39*
	한부모·조손	95.5	4.5		95.1	4.9	

주: *p<.05, **p<.01, ***p<.001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20)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1993)²¹⁾. 따라서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 부모, 교사 등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와 같은 예방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학교 및 지역사회에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기에 스크리닝하고,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생애주기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 인프라 및 정책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1)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315-341.